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컴퓨터 공학과	학 번	201**498	성 명	박명정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인도네시아	파견대학	ITB	파견학기	2015년 2학기
소요경비	비행기(왕복) : 약 70만원 정도 주거(자취방) : 한 달에 160만 루피아				
주거	파견 대학 기숙사도 있지만 이미 정원이 다 차버린 관계로 자취방 형식의 방에서 거주함				
룸메이트	없음				
기숙사 내 한국인	없음				
파견대학 정보	ITB(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주소 : Jl. Ganesha No.10, Kota Bandung, Jawa Barat 40132 전화번호 : (022) 2500935 웹사이트 : www.itb.ac.id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IRO(International Relationship Office) ITB 국제 교류원				
주말 및 여가활동	반둥에 유명 관광지 여행, 반둥 주변 관광지 여행, 운동, 쇼핑 등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학기 초반에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를 해주는 친구가 한명 있었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필요가 없었다.				
전공	Informatics				
수업 스케줄	월 ~ 금, 매일 학교에 갔으며 전공 수업 외에도 영어 회화, 인도네시아 언어 수업을 들었다.				

학생할인 관련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관광지에서 대개 현지인과 외국인의 입장료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때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임을 증명하면 대개 현지인과 비슷한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ISIC카드 활용	국제 학생증을 따로 활용하진 않았고, 그냥 씨티은행 카드를 이용해서 생활 했다. ITB 근처에 씨티은행이 있기 때문에 편리함.
영어공부	영어 회화 수업을 신청해서 따로 더 들었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과 영어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행	반둥에는 중소 규모의 아웃렛이 밀집되어 있다. 쇼핑의 천국으로 이쪽으로 공부를 하러 오는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발길을 끄는데 아기자기한 길을 따라 레스토랑과 쇼핑몰들이 늘어서 있어 '인도네시아의 파리'라 불리기도 한다. 보고르에 있는 화산 정상에 등산했고, 반둥 근처에도 온천이나 화산이 있어서 한번쯤 구경하기 좋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고 발리로 여행을 다녀왔다. 반둥에서 족자카르타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곳에 가지는 않았다. 족자카르타에는 유명한 사원들이 있는데 한번쯤은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통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심한 도시 중 하나이다. 특히 주말에는 자카르타에서 오는 많은 휴양객들이 붐비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유명한 교통수단으로는 앙콧, 고젝, 택시가 있다. 앙콧은 미니버스의 개념으로 가는 버스를 세워서 타고 원하는 목적지 인근에서 'kiri(왼쪽)' 이라고 말을 하면 세워준다. 가격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2,000 ~ 4,000 루피아 정도면 웬만한 거리는 다 이동할 수 있다. 주로 이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며, 외국인들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한 번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스스로 조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고젝은 오토바이 택시 같은 개념이다. 보통은 10,000루피아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 택시는 흔히 알고 있는 택시가 맞으며, blue bird 회사의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로 가장 안전하고, 택시 기사들이 요금 장난을 거의 하지 않는다.
날씨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낮에는 덥고 고온건조한 여름 날씨, 저녁에는 조금은 선선한 봄 날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반둥자체가 약간 고산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선선하고 좋은 편입니다. 다만 우기에는 비가 자주오고 스콜형태(소나기)로 잠깐 쏟아지고 그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하면 우비나 우산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외인턴	인턴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추신	

보완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일처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한국에서 신청했던 과목들과는 상관없이 이곳에 와서 새로 개설되는 과목, 영어로 개설되는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했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정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관해서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담당자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해서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수업 도중 영어가 아닌 인도네시아 말을 사용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말도 없이 수업이 취소되거나 시간이 옮겨지는 등의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점이 있으므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